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02호 현대불교  
2010년 9월 22일(음 8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 그저 항상 남한테 둥글둥글하고 모나지 않게 사십시오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모두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바로 내 주인의 심부름꾼이구나. 나는 부지런히 쫓겨나니까 주인인 당신만이 모든 대비 대책을 해서 다 이끌 수 있어.' 하고 다 맡겨 놓으면 그게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시, 단 5분이라도 좀 조용히 앉아 있을 때는 '아, 이거 봐! 주인공, 네가 있다는 것을 내가 더 잘 알잖아. 네가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봐.' 하고 관한다 이 소립니다. '이게 뭘고?' 가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왔나?' 가 아닙니다. 내가 여자피 이 세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못났든 잘났든 이 세상에 나온 것이 화두인 것입니다. 나로부터 상대가 생겼고 나로부터 세상이 벌어진 거지 내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로 있다가도 "여보!" 하면 금방 화해서 남편이 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아버지!"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버지로 또 화하죠. 저쪽 방에서 "애, 아무개야!" 하면 아들이 됩니다. 금방, 여러분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것이 다 우리가 참나로부터 발생하는 작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모른다면 무(無)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칼을 들고 나를 죽인대도 뭐 대책 하나 못 세우고 죽을 거 아닙니까. 몸뚱이 안에서 천차만별의 생명들이 쳐주다 쳐주다 간장이다 위다 식도다 방광이다 이런 부분들을 다 맡아서 자기의 소임으로 알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임을 제대로 안 해 줄 것 같으면 몸뚱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망가지게 되는 건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버릴 게 있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 버려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얻어 가지고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풀 한 포기만 살아 있어도 불교는 멸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일체가 못났든 잘났든 나로부터 생긴 거니까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 켜는 스위치는 탄 데 있지만 전구는 이렇게 많습디다. 전구는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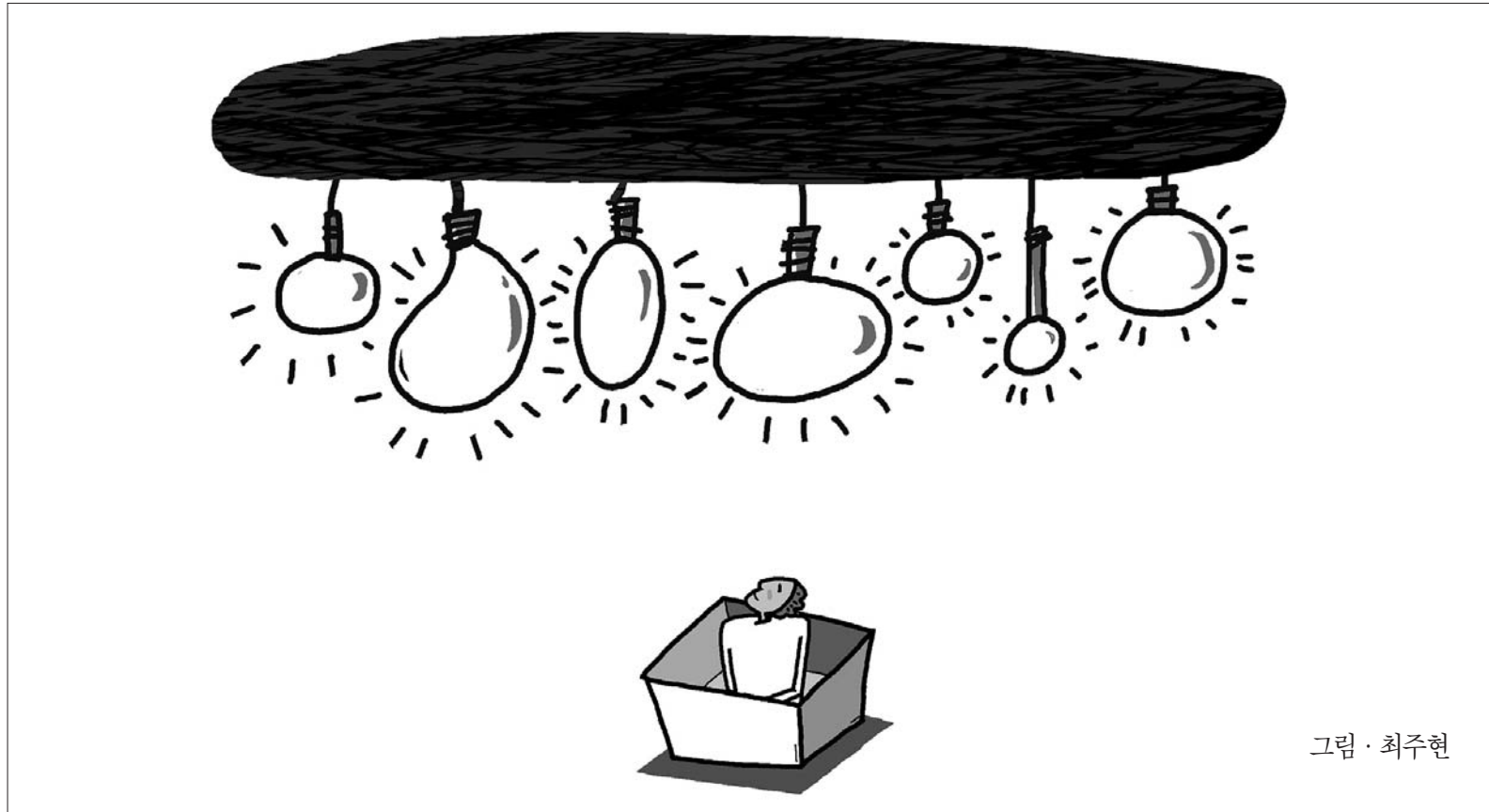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다 다르지만 전력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식구들이 다 각각 다르지만 아들이 다 딸이다 형제다 어머니다 자식이다 이게 다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가설, 부모라는 가설, 가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뿌리는 다 똑같은 가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자식이 안 들어오더라도 '너만이 들어오게 할 수 있잖아. 돌이 아닌 까닭에 말이야. 개 마음도 내 마음도 돌이 아니니까 그 마음에 밝게 불을 켜 주는 것도 너뿐이다.' 하고 관한다면 그게 입력이 돼서 바로 촛살같이 그 마음에 가서 불이 들어오면 그 마음으로 인해서 몸이 저절로 오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 일어난 일들은 마음으로 고쳐야지요. 병든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어디서 온 거라는 것만 알면 대치를 할 수 있겠죠.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100% 맡기십니까? 병원에 가서는 50%만 맡기고 50%는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몸을 집을 삼아서 주인으로 사는 이 생명들과 돌이 아니게 서로 통한다면

손은 의사의 손을 빌리되 주인이 고치는 겁니다. 빌려서 될 일이라면 빌리고 빌리지 않아도 될 일이라면 빌리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속에서 보살로 화해서 응신이 돼서 약사 의사로다가 나투어 주시니까요. 그 속에 들어가서 의사가 돼서 고치는데 뭐가 그렇게 거푸짱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나 아님이 없고 내 아님 아님이 없느니라. 그러나 부처가 부처가 아니니라. 내 모습 아님이 없고 나 아님이 없는데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됐을 때 부처라고 하겠느냐? 부처라는 이름 없는 것이 부처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이 뭘고? 내가 어디서 왔나? 이렇게 찾는다면 백내 날이 가도 못 찾아요. 단 5분을 관한다 하더라도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너만이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크게 일어났다고 할 때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음을 조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기 전에 원자라고 합시다. 원자 속에서 입자가 나가서

보살의 행을 그대로, 응신으로서 남의 마음과 돌 아니게 돼서 조절하는 겁니다. 마음이 열 개가 모인대도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영이니까요. 만 개가 한데 모여도 영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이 없이 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하는 사이 없이 하는 뜻이라는 애깁니다.

앞으로 우리가 절대적인 정신계의 이 마음을 제대로 물리가 터지게 하고 발전을 시켜야 물질 발전에 의해서 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로만 얘기 합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가난하고 거지고 부자고 그걸 떠나서, 권력 있고 권력이 없고 이걸 떠나서, 지식이 있고 없고 학식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돌 아니게 조절할 능력이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태양이 축소되고 타 버리게 된다면 안 되니까 내가 태양이 될 줄 알아야 축소가 되지 않게 하죠? 또 태양이 팽창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태양이 될 수 있어야만 태양을 팽창시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울바로 이끌어 가게끔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계의 발전을 못하면 허공의 에너지도 꺼내 쓸 수가 없습니다. 땅에만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허공에도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허공의 에너지를 꺼내 쓰려면 여러분의 마음도 그 차원이 돼야만 꺼내 쓸 수 있지 그 차원이 안된다면 꺼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광대무변하고 미묘해서 어디든지 아니 닿는 데가 없고, 조그맣든 크든 어느 거든지 아니 닿는 게 없습니다. 모든 별성을 낳는 생산체, 큰 별성 블랙홀로부터 우주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나 아님이 없고 내 생명 아님이 없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날 요런 웅덩이 안에서 비비적거리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그렇게 광대무변하니 까 지구를 벗어나서 한 잘나에 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부처님께서도 도가 아니라도 그려졌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고 올이 없이 가고 올 줄 알아도 도가 아니라, 볼 줄 알아도 도가 아니라, 들을 줄 알아도 도가 아니라, 그것들이 어디서 온 거를 다 알아도 도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건 왜냐? 내가 될 줄 알아야 하고 내가 배고프면 먹을 줄 알아야 하고 배고픈 사람 줄 줄을 알아야만 그것이 진짜 진리며 그것이 바로 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은...' 그 말을 했더니 노래로 그렇게 지어 놔죠. 그런 거와 같이 부처님 법이 따로 없이 일상생활, 일체가 우리의 법입니다. 다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 계셨다면 바로 그때 시절의 방편을 써서 설법을 하셨죠.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변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달구지라고 했던 그 방편을 지금은 무역 비행기라고 해야만 옳은 것이죠. 용도가 그렇게 달라졌으니까 그 말도 이름도 변경을 해서 모두 요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맛있게 먹게끔 해 드리는 게 옳은 일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가정에서도 구멍이 속에서 헤어나

▶ 26면으로 계속

초판 22쇄의 스테디 셀러!!

10,000원 A5 / 287쪽

##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룸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하던 말입니까? 마음이 곧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http://www.hyunbulshop.com)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 (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게송·선화의 집대성
-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풀 금강경 (독송용)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풀 천수경 (한글/영어)